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에 대한 리해

안 명 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실시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시기 나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되게 하는것이다. 그러자면 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자면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여야 한다.

오늘 국가가 사회주의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본질에 있어서 기업관리에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경영활동권한이다.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우선 생산자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준다.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주인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생산자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소유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소유제도는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며 경제관계의 개조자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의 경제관계가 개선되어나간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경제적과정을 지배하며 창조된 물질적재부를 향유하는 경제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어느 사회에서나 경제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며 자신이 창조한 물질적재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적대계급사회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이기때문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적대계급사회에서는 소수 지배계급이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압박하면서 그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것으로 되는 사회,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경제의 참다운 주인이 될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의 창조적인 생산활동은 생산수단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규정된다. 생산수단을 점유했을 때에는 경제활동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하며 생산물

을 처분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려면 국가주권과 함께 생산수단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이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경제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것은 그것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가 아니라 그 결합을 전제로 하여 국가가 사회주의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활동권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경영권이다.

기업체들에 경영권을 준다고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이 갈라지는것처럼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인 동시에 경제관리의 주인이기때문에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경영활동권한인것으로 하여 생산자대중에게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게 한다.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또한 생산자대중이 경제활동에서 제기하는 리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한다.

경제관리는 주인의 경제적리해관계와 요구를 실현하는 기능인것만큼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경제적리해관계와 요구를 실현하는 기능으로 된다.

생산자대중이 경제활동에서 제기하는 리해관계와 요구는 국가의 경제적리해관계, 기업체집단의 경제적리해관계, 개별적근로자들의 경제적리해관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에는 국가의 경제적리해관계가 반영되어있다.

사회주의국가가 제기하는 경제적리해관계는 나라의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물질생활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사회주의국가가 이러한 리해관계를 제기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의 공동의 리해관계의 대표자이기때문이다.

나라의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사회의 물질적재부창조의 물질적조건이다. 사회의 물질적재부는 나라의 자립적인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빨리 늘어나게 되며 이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물질적재부를 더 많이 창조하자면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기업체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은 사실상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의 구성부분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이 생산기술적조건을 끊임없이 현대화, 정보화하여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계획과제를 넘쳐 수행할 때 그만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토대가 강화되며 사회의 물질적재부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에는 매개 기업체들에서 독자성과 창발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데 대한 경제적리해관계와 요구가 반영되어있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에는 기업체집단의 경제적리해관계와 개별적근로자들의 경제적리해관계도 반영되어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제적리해관계와 기업체집단, 개별적근로자들의 경제적리해관계가 통일되어있다.

나라의 물질적재부가 늘어날수록 기업체집단과 개인에게 차례지는 몫도 빨리 늘어난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과 기업체집단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업체집단과 근로자들도 모두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사회적생산전반을 조화롭게 빨리 발전시키는데 경제적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집단, 개별적 근로자들의 경제적리해관계가 따로 제기되지 않는것은 결코 아니다.

기업관리에서는 국가적리해관계와 함께 기업소집단의 이해관계, 개별적생산자들의 이해관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집단과 개별적생산자들의 경제적리해관계는 그들이 사회공동의 경제적리해관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정도에 맞게 국가로부터 공정한 분배를 받는데 있다. 국가는 창조된 국민소득을 사회공동의 수요충족에 우선적으로 분배하면서 기업체집단과 개별적생산자들이 사회의 물질적재부의 창조에 이바지한 노동의 질과 량에 따라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에는 바로 기업체집단과 개별적생산자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창조된 물질적재부를 합리적으로 분배할데 대한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어있다.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또한 인민대중의 정치적자각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어나가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정치적자각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은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남김없이 발양하도록 하자면 그들의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인민대중의 정치적자각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우선 생산자대중의 정치적자각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한다.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주인다운 자각, 주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는것이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권은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옹계 자각하고 생산의 발전과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생산자들이 주인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기업관리에 참가할 때 그들의 정신력이 최대한으로 분출되어 경영권이 원활하게 활용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또한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생산자들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풀어나가게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경영권을 부여한것은 기업체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자기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생산과 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시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국가적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생산과 경영활동은 생산자대중자신을 위한것이며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생산자대중자신에게 있으며 그렇게 할수 있는 창조적힘도 생산자대중자신에게 있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도 대중의 자각성과 함께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생산의 발전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조직동원자적기능의 하나이다. 따라서 경영권이 옳게 활용되면 생산자대중의 정치적자각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그들의 지혜를 발동시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된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고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힘을 동원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감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또한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의 경제활동은 집단주의에 기초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사람은 사회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고 창조적역할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는것도 사회주의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하는데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에 따라 집단과 개별적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옳게 실현해나가야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기업관리에서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공고발전시켜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한다.

경영권은 사회주의기업체들에서 생산지휘자와 생산자들사이, 생산자들호상간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게 한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권이 생산지휘자와 생산자들사이, 생산자들호상간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게 하는것은 그것이 기업관리에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생산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기업관리에서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공고발전시킬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집단주의적경제관리, 인민대중자신의 경제관리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가 집단주의적경제관리라고 하여 그것이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집단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사회주의국가와 경제관리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의 하나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을 옳게 세우는것이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면서 집단에 속한 모든 성원들의 이익을 옹호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방법의 적용원칙은 집단주의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집단의 요구를 선차적으로 실현하는 기초우에서 개인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며 사회적집단의 단결과 협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면서 집단에 속한 모든 성원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복무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가 기업체들에 부여한 경영권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을 확립할 때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된다.

경영권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집단주의적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은 다름아닌 대안의 사업체제와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이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 기업관리는 집단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정치적방법으로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집단주의적원칙에서 물질적자극을 실현하게 하는 경제기술적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방법과 사업전개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떠난 경영권의 원활한 활용을 생각할수 없다.

결국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권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질서와 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생산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기업관리에서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생산자대중이 기업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은 생산자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주고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정치적자각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집단주의에 기초한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속에서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가 철저히 구현된 경영활동권한으로 된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은 사회주의기업체의 경영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그에 맞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제적인 은을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사회주의기업체, 경영권